

신성통상 해고 여성노동자 회사앞 출근투쟁

“다른 회사 친구들은 25만원 받는 데 우리들은 9시간 꼬박 일해도 18만원밖에 못받아요. 학교에서 월급날이 되도 창피해서 월급받다는 얘기도 못해요.”

올해 20살의 정경숙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대문평화시장에서 1년반 보조 미싱사 생활을 거쳐 지난 88년 10월 봉제의류업체인 (주)신성통상(대표 배기호)에 입사했다.

월급은 적고 힘이 들어도 밤에는 산업체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싶던 공부를 맘껏 할 수 있어 좋았하던 정씨는 해고노동자가 되어 같은 또래의 여성 해고노동자 7명과 함께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경기도 양주군 덕계리 신성통상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11일로 1백10일째 힘겨운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그룹 계열사인 신성통상은 내수용 원단과 하이파이브·유니온 베이 등 중·고가 캐주얼 의류생산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6백50억여원에 이르고 당기 순이익이 9억~10억원(89년 기준)이 되는 잘 알려진 의류업체다.

배움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정씨가 해고노동자의 길을 걷게



11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주)신성통상 정문 앞에서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양주=장철규 기자>

노조활동이유 부당해고 철회 요구

회사-노조 맞고소상태 해결실마리 안보여

된 데는 지난 5월19일 신성통상 의정부 공장과 양주군 덕계리 공장 두곳 노동자 6백여명 가운데 3백90명이 참여해 노조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됐다.

회사쪽은 노조원들 가운데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전민아(24·여)씨를 전문대 졸업을 감추고 입사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25일 해고했다. 회사쪽은 이어 지난 6월13일 덕계리 공장 기숙사 안에서 노조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했던 노조 회계감사 최정순(23·여)씨에 대해 기숙사 무단침입과 사감을 감금했다며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6명의 노조원을 해고하고 7명을

중징계했다.

회사쪽의 해고와 징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난 6월13일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면서 산업체 학생이기도 한 여성 노조원 1백50명이 회사쪽의 노조활동 방해와 노조유인물을 수거하기 위해 강제로 가방을 검사하려는 것에 반발해 회사 정

문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해고노조원들은 “7년 근속을 해도 임금이 27만원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으며 보통 섭씨 35도가 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부당 해고나 징계를 하는 회사가 청소년 기금을 마련한다는 미명 아래 지난 7일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청소년 록음악 축제를 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회사쪽은 하루빨리 부당한 징계·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통상 양주 공장 김광택 노무과장은 “록음악 축제”는 상품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체육청소년부 청소년기금 마련활동이며, 이들 노조원들의 해고·징계는 무단파업·생산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회사쪽은 현재 전 위원장 등 이 해고노동자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반면, 전 위원장 등은 김순기 양주 공장장 등 4명을 폭력행위로 고소해 놓고 있어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홍용덕 기자>